

우리나라 의과학계의 자랑스러운 자산



제15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3월 21일 오후 6시 서울시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15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신의철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이정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에게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김성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교수와 서종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에게 각각 5천만 원, 총 4명에게 7억 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아산의학상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낸 국내외 의학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됐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신의철 교수는 지난 20년간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연구하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치료방향을 제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이정민 교수는 소화기계 질환의 영상 진단, 예후 예측, 중재 기술 분야 연구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만 40세 이하의 의학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

인 김성연 교수는 생리적 욕구와 본능적 행동의 과학적인 원리를 제시하여 뇌신경과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서종현 교수는 신경두경부 분야에서 영상 검사의 적응증 및 진단 능력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며 올바른 진료 지침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버님께서서는 의료진들에게 ‘의학이라는 학문과 의학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자체도 또한 한이 없습니다. 숭고한 정신을 한없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네 분의 교수님들을 열다섯 번째 수상자로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수상자 네 분이 쌓은 훌륭한 업적들은 우리나라 의과학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상자들이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하시는 데 오늘의 아산의학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아산재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상자 부부만 초청해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글 편집부